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7월 6일)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올여름 시원·안전한 사찰서 휴가 만끽할까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 휴가지로 문전성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됐던 템플스테이가 여름 휴가지로 주목받으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휴가의 계절 여름을 맞아 산과 바다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심을 떠나 산사에서 불교의 문화를 체험하고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전국 각 사찰들도 바다와 숲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특색 있는 템플스테이를 선보이며 여름 휴가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에 따르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전국 143개 사찰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예약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크게 완화된 가운데 산사에서의 하룻밤을 즐기기 위해서다.

특히 양양 낙산사, 인제 백담사, 동해 삼화사 등 인기 여름 휴가지인 산과 바다가 맞닿은 사찰일수록 예약마감이 빠르다. 바다와 숲길을 접하면서 묵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측의 설명이다.

실제 인제 백담사 템플스테이에서는 설악산 숲속에서 진행하는 호흡명상이 올여름 템플스테이 동참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백담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백거 스님은 "스님과 함께 포행 후 숲에 앉아 호흡명상을 하면 무더위로 쌓인 피로가 풀린다는 참가자들의 후기가 대다수"라면서 "특히 설악산 침엽수의 피톤치드를 접하고 감동, 재참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름휴가지로 템플스테이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전국 사찰에서는 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무등산 증심사는 템플스테이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이 있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참가자는 전통한옥 숙소 1동 및 텐트 1동에서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다. 저녁 영화 상영, 무등산 숲 체험과 함께 옥수수와 감자 등을 화롯불에 구워 먹을 수 있는 간식 제공 등 캠핑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한국문화연수원도 올여름 한시적으로 캠핑 감성 가득한 '온가족 캠핑스테이'를 운영한다. 텐트와 함께 고구마 등을 구워먹을 수 있는 캠핑존 그릴이 준비됐으며 '불멍' 시간도 마련됐다.

해발 800m 청정 지대에 위치한 영월 만경산사는 고지대의 자연을 한껏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도량 가득한 200여 종 이상의 야생화와 산약초를 직접 캐고 맛보며 자연 속에서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힐링 에너지를 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들 템플스테이의 공통된 특징은 오롯이 '휴식'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찰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가득한 체험형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끌었다면 올해는 산사의 호젓함을 명상과 포행으로 여유롭게 즐기면서 몸과 마음에 안정을 찾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선택하는 이들이 급증했다.

캠핑 등 특별 프로그램 주목
RM 즐긴 '휴식형' 인기 만점
"쉼 필요시 마음의 휴식 공간"

최근에는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이 여름 휴가로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택해 화제를 모았다. RM은 7월 25~27일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 머물며 산내 암자인 중암과 은선암 등을 순례하고 시원한 계곡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RM은 템플스테이 후 자신의 SNS에 한여름 망중한의 여정이 담긴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아름다운 산사에서 만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는 삶의 쉼표가 필요할 때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이라며 "자연에서 보내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몸도 마음도 시원하고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한 여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름 템플스테이 일정확인 및 예약은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가능하다. (02)2031-2000



부처님 품안서 천진불 여름나기

천진불의 여름한마당이 서울 조계사에서 펼쳐졌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7월 24일 개최한 '풀장이 있는 여름불교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스님과 불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3년만에 문을 연 여름불교학교를 만끽했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3년 만에 대규모 MZ포교 행사 열린다

대불련 영부디스트·불교스카우트 숲캠퍼리 등 눈길

여름방학 맞아 캠프 등 개최
코로나 기간, 비대면 중심서
대면 중심 포교 활성화 계기

코로나 기간 닫혀있던 어린이·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행사가 여름을 맞아 속속 열리고 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조석주)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양산 통도사 및 청도 운문사 일대에서 '제13회 KBUF Young Buddist Camp'를 개최한다. '다시 만난 우리, 함께 하는 청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코로나 기간 규제됐던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약 3년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된다.

대면행사인만큼 대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사찰순례, 청춘강연, 법등별 시간, 미션, 마음나누기,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성행)도 8월 5일부터 7일까지 경남 하동군청소년수련원에서 제15회 한국잼버리 화랑서브캠프 및 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캠퍼리를 개최한다.

캠퍼리는 캠핑과 잼버리의 합성어로 전국 불자 청소년들이 신라 화랑도처럼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캠퍼리에서는 아침예불, 명상, 108배, 단주만들기, 태극부채꾸미기, 숲밧줄놀이, 짚라인, 탐험하이킹, 캠프파이어, 장기자랑,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습,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불교계 대표 어린이청소년축제도 대규모 대면행사로 준비 중이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9월 17일 동국대 일원에서 제14회 나란다축제를 개최한다.

'전통 속에 피어나는 청소년 꿈마당'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상월선원 안거체험, 상월결사 평화방생 순례체험, 진학·진로 엑스포, 청소년 전통문화 한마당, 불교교리경시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 전통문화 공모전, K-Dance 경연대회,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 어울림마당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측은 "최근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행사와 달리 올해는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안거와 순례 등 불교수행 체험을 통해 불교정신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8월 2일 '2022세계청소년명상페스티벌'을 개막했다. 8월 4일까지 2박 3일간 열리는 이번 명상페스티벌은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200여 전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해 사찰에서 명상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번 청소년명상페스티벌에서는 불자 선수인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오 선수의 '몰입의 습관' 강연을 비롯해 tvN '어쩌다 어른' 출연자인 김경일 교수의 심리 강연, 청소년을 위한 6가지 명상 체험 등이 진행됐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지현)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국대 WISE캠퍼스와 불국사, 석굴암 등 경주 일원에서 '지혜, 자비, 정진으로 가치 있는 꿈찾기'라는 주제로 25회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했다. 3년 만에 열린 전국연합캠프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파라미타 회원 500여 명과 지도교사들이 함께했다.

최근 불교계 어린이청소년 포교행사는 그동안 정체된 MZ포교의 활로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조석주 대불련 회장은 "코로나 기간 대학교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 여름캠프를 맞아 법우들의 신청이 역대급으로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코로나 기간 법회 중단과 등으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며 "침체된 미래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사찰을 비롯한 각 현장에서의 관심과 연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여름휴가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